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▪ **문 의** : 문화관광연구부 김형오 연구위원
(063-280-7172)

▪ **담당실장**: 연구실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11)

보도시점 : 2018년 6월 11일(월)부터

관광객 체류시간 확대와 신규유입으로 관광체류인구 증대해야

**전북형 DMO설립으로 체류인구기준 관광자원개발사업 전북주도
열린관광지, 실버여행 1번지 등으로 신규 관광체류인구 유입**

- 전라북도 관광체류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2.5계절 관광형을 4계절형으로 전환하고 전북의 강점을 활용한 관광체류인구의 신규유입과 체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『전라북도 관광체류인구 증대 방안』이라는 이슈브리핑(171호)을 통해 관광체류인구를 어떻게 증대할 것인가에 대해 4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.
- 첫 번째, 관광체류인구를 현재의 관광지 중심에서 마을까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주도 역량강화사업 ‘관광두레’ 주민사업체를 100개소로 늘리고, 전북관광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관광 중간지원조직인 ‘전북형 DMO 설립’을 제안했다.
- 문화체육관광부 균특회계내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분권 강화로 인해 배분, 조정, 편성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가능성이 높아 전북형 DMO를 조직해 체류인구 기준의 개발계획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.

- 두 번째,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을 위해 ‘열린 관광지’ 10개소 조성이 필요하며, 문화·예술·체육 ‘이벤트의 확대 및 콘텐츠 강화’를 통해 관광객 맞춤형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.
- 특히, 5월과 10월에 집중된 관광객을 4계절로 확산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축제와 국제이벤트 개최를 제안했다.
- 세 번째, 신규 관광체류인구 발굴을 위해서는 ‘맞춤형 노인복지 여행상품 개발’, ‘재외동포의 모국방문 및 한류팬덤 활용콘텐츠 개발’, ‘전북에서 한 달 살기’ 등을 통해 실버, 재외동포, 한류 외국인관광객 등의 신규관광객 발굴을 제안했다.
- 네 번째, 관광 만족도 및 재방문을 제고를 위해서는 전북 관광 자원 1순위 음식자원을 글로벌 명품 관광상품으로 육성해야 하고, 여성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는 ‘여성 안심숙박인증제 서비스 도입’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- 결국 전라북도 체류인구 증대를 위해서는 신규 관광객 증가와 함께 체류시간과 체류기간을 연장시키는 전북 특화 관광콘텐츠 발굴과 정부의 행·제도적 지원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.
- 김형오(연구책임) 박사는 “외국인 관광객의 지방유치를 위해 철도, 항만 등 인프라 예산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주는 일본의 광역관광주유루트와 같은 관광특례제도의 국내도입이 필요하다”가 주장했다.